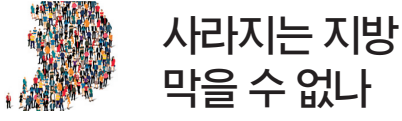


## 대학, 빗꽃 피는 순서 아닌 동시다발 망할 위기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 <11> 지방대 살아남기 전쟁

학과 통폐합하고 고강도 혁신  
지역 중심대학으로 전환 시급  
행·재정 지원 지방정부로 이양  
지역·대학 동반성장 추진해야

최근 국립목포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65개 신입생 모집단위를 37개로 축소하고, 전체 학과의 30%에 해당하는 15개 학과를 폐지하는 파격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 국립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다.

목포대가 주목받는 것은 고강도 혁신안을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모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 안을 마련했지만 사문화된 것과 대조적이다.

A대학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공감하고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도 "학과 폐지의 경우 교수들이 '내가 정년퇴직할 후에 하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학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정부의 전향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들이 교수·교직원들 감축할 수 있는 토대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대학들은 명퇴 희망자가 늘고 있음에도 퇴직금 지원 등 예산 한계 때문에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퇴직 대상자 재정 지원, 이직 프로그램 등을 외면하고 있어 학생이 줄어도 교직원들은 줄일 수 없는 실정"이라며 "파격적인 혁신이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학 등 확실한 생존전략과 지향점을 가진 대학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빗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대학 문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줄여 지역 대학과 고등분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605개 초·중·고 신입생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107곳(휴교 4개교 포함)에 달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가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조정을 통해 2001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을 늘렸다.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은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에서 1829명(수도권 817명·비수도권 1012명)이 순증된다. 이는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중하는 정책이다.

지방대 위기를 돌파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대안으로



광주 금남로 '쿨링로드' 가동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중앙선에 설치한 '쿨링로드'가 작동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불가열엔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여름 폭염엔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가 대표적이다. 라이즈는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으로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벌(Global+Local) 대학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정책은 새로운 게 아니라 수십 년전 세계 주요 국가와 대학들이 실천한 생존모델이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자·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부산 청년 유출을 막는 정책을 추진, 라이즈 선정으로 도약기를 맞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산학 협력의 연결·매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1월 지자체 내 대학 지원부서를 마련하고,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산학 협력 전담 기관인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했다.

부산이 산학 협력에 매진하게 된 것은 한국 제2의 도시라고는 해도 부산 역시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순 없었던 탓이 컸다.

부산에 비해 준비가 늦었지만 그나마 전남도는 라이즈 사업에 선정됐고, 광주는 탈락해 광주 대학가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시는 라이즈 사업에 선정된 전국 비수도권 7개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역 C대학 관계자는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 인재육성과(대학협력팀)가 라이즈 사업을 주도했

다는 것만으로도 광주의 대학위기 체감도를 보여준다"며 "대학의 위기가 지역사회의 위기와 직결된다는 지자체의 발상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도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학문 전수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발전, 학생 취업 등 일차리와 연계된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

이다. 예컨대 영문학과에 지역 관광영어 과정을 도입하거나 법학과에서 실용 부동산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D대학 관계자는 "강단에 안주하려는 현재 인식 수준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지역과 연동된 학문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생존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윤 대통령 5·18기념식 참석한다

### 국힘 의원들도 전원 참석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올해도 참석하면 2년 연속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와 같이 KTX특별열차를 마련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일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제43주년 5·18 정부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

지를 다시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또 기념식에서 어떠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역대 대통령 중 기념식에 가장 많이 참석한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취임 첫해인 2017년(5·18 37주년)부터 2020년까지 열린 4차례 기념식 중 한 차례를 빼고 모두 참석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대통령의 동선은 보안 사안이라 확실치는 않지만, 올해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오월 영령에게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뜻 깊은 기념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5억 주택 15만원 덜 낸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돼 5억원 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5만여원 줄어든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으로 15만4000원이 줄었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 400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6월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일에 부가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풀리는 잘 있을까...31곳 점검해보니 ▶6면



길이 삶을 바꾼다 - 남평·화순 국지도 ▶11면

이강인 6골 4도움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